그림 · 박구원

우리는 참불자인가

어떤 사람이 참불자인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불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불자적 삶을 살고 있다. 생생한 부처님의 법문을 얼리하고 나만의 복락을 구하거나 불설(佛說)을 가장한 비불교에 현혹되는 예가 허다하다.

참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제 33권 929 〈일체사경(一切事經)〉에서 진정한 재가신도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불자의 조건' 16가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불기 254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나와 이웃이 함께 성불의 인연을 가꾸어 갈 것을 서원하며 나와 남이 편할 수 있는 〈일체사경〉의 가르침을 참불자의 지표로 삼아 새 불자로 거듭나자. 고실업 고물가의 경제대란 속 인간 윤리마저 벼랑끝에 서 있는 절박한 현실을 극복할 지혜가 샘솟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고향인 카필라바투국 니그로다 동산에 계셨다. 그 때에 석씨 마하나마는 부처님께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고 한 쪽에 물러 앉아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파아사카(우바새)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파아사카란 집에서 깨끗하게 살면서 '목숨을 마칠 때까지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하여 우파아사카가 되겠나이다. 나를 증명하여 알아 주소서'라고 한 이들이니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파아사카가 모든 것을 원만히 갖춘 것이라 하나이까."

"만일 우파아사카로서 믿음이 있고 계율이 없으면 그것은 갖추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깨끗한 계율을 완전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믿음과 계율은 완전히 갖추었으나 보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니,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보시를 닦아 익혀 완전히 갖추어야 하느니라.

믿음과 계율과 보시는 갖추었으나 자주 사문에게 나아가 바른 법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자주 절에 나아가 여러 사문을 뵈옵지마는, 지극한 마음으로 바른 법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계율·보시·들음을 닦아 익혀 만족하게 한다. 그러나 들고도 가지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자주 사문에게 나아가 알뜰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 듣고는 잘 가진다.

그러나 그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믿음·계율·보시·들음과, 듣고는 가지고 가지고는 매우 깊고 묘한 뜻을 관찰한다. 그러나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할 줄 모르면 그것도 또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믿음·계율·보시·들음과, 받아 가지고 관찰하여 깊은 뜻을 밝게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을 우파아사카의 모든 일을 만족히 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마하나마는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우파아사카로서 몇 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우파아사카로서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하느니라. 어떤 것이 열 여섯인가. 마하나마여, 어떤 우파아사카는 바른 믿음을 완전히 갖추어 그것으로써 남도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 스스로도 깨끗한 계율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남도 계율을 지니게 한다. 스스로도 보시를 행하고 남도 보시를 행하게 한다. 스스로도 절에 나아가 사문을 뵈옵고 남도 사문을 뵈옵게 한다. 스스로도 알뜰히 법을 듣고 남도 또한 듣게 한다. 스스로도 법을 받아 가지고 남도 받아 가지게 한다. 스스로도 법의 뜻을 관찰하고 남도 관찰하게 한다. 스스로도 깊은 뜻을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닦아 행하고, 남도 깊은 뜻을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닦아 행하게 한다. 마하나마여, 이런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그것을 우파아사카의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마하나마여, 만일 우파아사카로서 이런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저 대중들, 즉 바라문 대중·크샤트리아 대중·장자 대중·사문 대중들이 다 그에게 모일 것이요, 그 대중 가운데서 위엄과 덕은 환히 빛날 것이다. 마치 태양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그 광명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파아사카로서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위엄과 덕은 밝게 빛날 것이다. 마하나마여, 이와 같이 우파아사카로서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은 얻기 어렵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석씨 마하나마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나갔다.

잡아함 一切事經
재가신도 조건 16가지

1. 세가지 보배(불·법·승삼보)에 귀의.
2.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3. 바른 믿음을 갖고
4.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5.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6.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7. 언제나 보시를 행하며
8.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9. 자주 절에 나가 스님에게 법을 청하고
10.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11. 들은 법을 잘 받아(기억) 지니고
12.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13. 받아지닌 법이 옳은지 그른지 관찰하고
14.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15. 바른 법에 따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고
16.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만일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하면 대중들이 그에게 모일 것이요 위엄과 덕이 환히 빛날 것이다"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종단진흥회

명예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상임수석고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배 일 공
상 임 고 문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상 임 고 문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광 태
법 률 고 문	수도변호사회	변 호 사	용 태 영
회 장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김 무 찰
부 회 장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윤 송 정
사 무 총 장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송 보 인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우 연 담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대 호
이 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 혜 우
이 사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김 성 초
이 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 법 덕
이 사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이 혜 공
이 사	대한불교 대각종	총무원장	석 만 청
이 사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이 송 산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사무총장	권 성 우
이 사	천 화 불 교	교 정	이 희 수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리원장	손 임 숙
이 사	한국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손 혜 인

■ 서울 종로구 낙원동 150-1(파고다빌딩 3층) TEL : 02-766-4848, 5006 FAX : 02-766-5007